

# 도교육청 'IB학교' 알리기 거리두나

### 지난달 14·23일 후보학교인 표선초에서 공개수업 진행 학교측 홍보 요청에 '미적'... "학교별 고른 선택에 빠져"

제주도교육청의 제주형 자율학교인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국제 바칼로레아(IB) 공개 수업 홍보 자료가 언론에 제때 제공되지 않은 점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광수 신임 교육감이 취임 전 몇 차례 발언을 통해 IB 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등과 맞물려 제주도교육청이 벌써부터 홍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그중 하나다.

표선초는 지난달 14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IB 네트워크 학교, 표선면 관내 초등학교, 수업혁신 학교장동아리, 희망 교원 등을 대상으로 IB 수업 공개를 실시했다. 학교 측은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공개 수업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기회를 때마다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 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IB 교육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알려왔던 도교육청은 표선초에서 같은 달 24일쯤 관련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언론에 별도로 이런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도교육청은 표선초 학생 수가 2년 사이 40% 늘어난 배경을 두고 IB 후보학교로 인증된 결과로 풀이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었다. 현재 표선초는 또 다른 IB 후보학교인 토산초, 표선중과 함께 '월드스쿨'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보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자는 "일부러 자료를 뺐 게 아니라 학교 별로 돌아가면서 보도자료를 만들다보니 이번에는 표선초가 누락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달 8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현판식 자리에서 "표선초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IB교육 과정이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현행 IB교육을 없애지는 않겠다. 하지만 확대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주말 도 전역 30℃ ↑ 기상청 "온열질환 발생 우려"

제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비교적 선선했던 남부와 동부, 서부의 기온도 오르기 시작했다.

3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32.1℃, 서귀포 28.7℃, 성산 28.5℃, 고산 28.4℃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제주시에서만 관측됐던 열대야도 간밤엔 서귀포와 고산서도 관측됐다.

무더위는 주말에도 이어지겠다. 당분간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북동부는 낮 최고기온이 30~33℃, 서부는 31℃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무더위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금계국 핀 해안도로 즐기기 30일 제주시 한림읍 해안도로에 노랗게 물든 금계국을 배경으로 관광객이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주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눈앞

### 지난 28~29일 1차 심사 실시 2차 심사후 공인 여부 결정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위한 1차 심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제주는 2007년 국제안전도시로 최초 공인된 이래 2012년 2차 공인, 2017년 아시아 최초 3차 공인에 이어 올해 4차 공인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1차 심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심사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된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심사단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스웨덴 국제안

전도시 공인센터(ISCCC)의 2차 현지실사(본심사)에 대비한 국내 사전평가 성격이다.

심사는 ▷총괄보고 ▷손상감시 체계와 평가 ▷교통사고 예방 ▷노인 낙상 예방 ▷자살사고 예방 ▷폭력범죄 예방 ▷해녀, 길잃음 등 고위험군 사고예방에 대한 분야별 심사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안전본부는 1차 심사 결과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8월에 예정된 본심사에 대비할 계획이다. 공인 여부는 오는 1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일 금요일 음 6월 3일 (10월)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0%
20%	성산	0%
20%	고산	0%
20%	서귀포	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5/31℃
모레	흐림 24/30℃

### 맑음

제주 맑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 낮 최고기온은 28~32℃로 예상된다. 북부 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나 보건과 농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 해돋이 05:27	☁ 달뜨기 06:54
🌅 해질 19:48	🌙 달지기 21:41
🌧️ 만조 00:07	🌅 간조 06:41
🌊 11:36	🌙 18:10

🚑 식중독지수 경고	☀️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	---------------

미세먼지 (PM10)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한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 "멸종위기 '갯게' 보호 대책 마련하라"

### 환경운동연합 최근 대정읍 동일리서 2마리 서식 확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갯게가 관측됐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도는 즉각적인 보호구역을 나서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41년 에월에서 포획된 이후 발견되지 않다가 지난 2010년 다시 발견되며 관심을 끌었던 갯게 서식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갯게는 매우 희귀한 해양생물로, 하구지역의 논둑과 제방에 깊은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과거 38개 지역에서 확인되던 갯게가 2019년 조사에서는 13개 지역으로 축소돼 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에서는 갯게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식이 확인된 갯게 개체수는 지역별로 3마리에서 10마리 정도만 조사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며 "대정읍 동일리 서식지

를 확인한 결과 20여 분간의 짧은 목적 조사로 2마리의 갯게 서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사진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더 많은 개체의 서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지역은 사각계, 말뚝계, 갈게 등이 확인돼 생물다양성도 높다"며 "그러나 이 지역에는 안내문이나 보호시설을 찾아볼 수 없고 쓰레기가 투기돼 있는 등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해수부는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는 생태계 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해 서식지 보호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제주의료원 제210518-중-123039호

## 제주의료원 39주년 개원을 축하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도민의 평생 건강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소개**

**건강 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 / 종합건강검진 / 채용검진(공무원, 일반)  
암검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진료 소개**

**의료원 및 부속요양병원 진료 소개**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화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대표번호 064-720-2222**

건강과 의료복지를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